“돈오란 수행과정 마지막 자리서 얻는 진정한 깨달음”



돈오입도요문강설
원순 스님 지음
법공양 펴냄/2만 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돈오입도요문론〉은 단숨에 깨달아(돈오, 頓悟) 부처님 세상인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입도, 入道) 요긴한 방편(요문, 要門)을 제시하는 글(論)이란 뜻이다. 송광사 인월암에 주석하며 경전 번역과 교학에 진력한 원순 스님이 마조(馬祖, 709~788)스님의 제자 대주혜해(大株慧海)가 저술한 〈돈오입도요문 강설〉을 새롭게 펴냈다.

원순 스님이 이 책을 강설하게 된 인연은 은사인 성철 스님 가르침을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설명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 원순 스님은 “은사이신 성철 스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조단경 만큼이나 돈오입도요문을 중요시 생각하셨다”며 “성철 스님은 선문의 근본은 견성이며 이 견성이 곧 돈오라고 말씀하셨다. 돈오란 수행과정의 마지막 자리서 얻는 진정한 깨달음이다. 해오점수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을 진짜 깨달음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돈오입도요문론〉은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50여 주제로 정리해 문답식으로 설명했다. 논지가 간단명료하고 강렬하게 선가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 요긴한 선수행 지침서로도 평가받는다.

〈돈오입도요문론〉 저자인 대주혜해 스님이 불법을 구하자 마조 스님은 이렇게 묻는다.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법을 구하려고 하는가?”

“어떤 것이 저의 보배 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대 자체가 보배 창고이다. 그대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조금도 모자랄 게 없어 쓰임새가 자유자재한데 어찌 그것을 놔두고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이 한마디 가르침에 대주 스님은 마조 스님을 6년간 모시고 살게 된다. 그 후 월주 대운사로 돌아온 스님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살며 〈돈오입도요문론〉을 저술했다. 이 책은 스님이 몸소 직접 기록한 글로서 뒷날 가필이나 삭제한 글이 없으므로, 〈육조단경〉 〈전심법요〉 〈벽암록〉 〈임제록〉 등 문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어떤 어록보다 완전한 저술로 여겨 선가에서 가치가 높다.



송광사 인월암에 주석하며 경전 번역과 교학에 진력한 원순 스님이 강의하는 모습.

〈돈오입도요문론〉, 단숨에 깨달아 행복한 삶 가는 방편 제시해
깨달음 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 50여 주제로 정리해 설명
논지 간단 명료하고 강렬한 선가 가르침 전해 선수행 지침서로

또한 이 글을 마조 스님이 생전에 보고 극찬하며 인가해 〈육조단경〉 〈신심명〉 〈증도가〉와 함께 귀중한 자료로 선종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원순 스님은 “대주 스님은 이 책에서 오직 ‘돈오(頓悟)’ 이 길만이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돈(頓)’이란 단숨에 헛된 망념을 없애는 것이요, ‘오(悟)’란 헛된 망념이 사라진 부처님 마음자리로 ‘더 얻을 게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대주 스님이 말씀하시는 ‘돈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오돈수(頓悟頓修)’의 ‘돈오’에 해당한다. 대주 스님 가르침을 듣고 ‘어떤 곳에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져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고 모든 공부를 끝낸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순 스님은 책에 성철 스님의 ‘출가송’ ‘오도송’ ‘열반송’ ‘발원문’도 함께 실었다. 스님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한 생각 쉬고 ‘단숨에 깨달아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길’을 읽는 인연으로, 오는 세상 뭇 삶들이 다 함께 부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은사 스님은 평소 이 책을 중요시 여겼기에 이 책 내용을 알면 큰스님 게송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원순 스님은 그동안 〈명추회요〉를 번역한 〈마음을 바로 봅시다〉, 대혜 스님 서장을 번역한 〈禪 스승의 편지〉 〈한글원각경〉 〈선요〉 〈몽산법어〉 〈도서〉 〈연꽃법화경〉 〈선가귀감〉 〈금강경오가해설의〉를 저자별로 번역한 여섯 권의 금강경과 선가귀감을 강설한 〈선 수행의 길잡이〉 등 다수의 불서를 펴냈다.

스님은 어렵기만 한 불교경전은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는 생명력 없는 책이란 신념으로 경전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불교를 알기 쉽게 번역해 출간하는 것을 원력으로 삼았다.

현재 화엄경 경전불사 원력을 세워, 많은 사람들이 〈화엄경〉을 친근히 읽을 수 있도록 방대한 분량의 〈대방광불화엄경 제 80권〉을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부산 동명불원 주지를 맡고 있다.

‘도덕경 인성교육 연구’ 재해석해 쉬운말로



당당하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살자
청공도경 스님 지음
성연 펴냄/1만7천원



저자인 청공도경 스님

현대인들 인성교육 위해 쉽게 풀어
〈도덕경〉 철학 현대에 맞게 재해석

‘얻으려면 먼저 주어라’ ‘채우려면 먼저 비워라’. 이 말은 곧 배려와 존중, 그리고 공존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노자의 〈도덕경〉 핵심이다. 노자는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며 도가의 시조이다. 〈도덕경〉은 춘추시대 말기에 노자가 난세를 피해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윤희가 도를 묻는데 대한 대답으로 적어준 책이라 전하나, 실제로는 전국시대 도가의 언설을 모아 한나라 초기에 편찬한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은 우주간에 존재하는 일종의 이법을 도라하며, 무위의 치, 무위의 처세훈을 서술했다.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심오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문화의 장벽이 가로막는 중국 고전을 읽는다거나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저자는 책을 통해 “노자의 도덕경을 통한 인성교육 연구를 재해석해 쉬운말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번 책 ‘당당하게, 따듯하게, 아름답게 살자’는 현대인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쉽게 풀어쓴 책이다.

〈도덕경〉에 담긴 철학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노자의 사상을 여타 학문과 짚어가며 요점 정리했다. 노자의 사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인성교육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고, 도가의 사상적 흐름이 어떠한지 배울 수 있다.

저자인 청공 도경 스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육을 사회적 적응이나 입신출세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살, 학교폭력, 일베 문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을 관계로 설명한 노자의 〈도덕경〉은 인성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도덕경〉은 만물의 존재 방식과 운행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인성교육에 적용된다면, 인성의 정의는 관계적인 측면서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세계와 공동체의 상황, 글로벌 영역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구축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향을 찾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무아 가르침 깨닫고 실천할 때 코칭이 가능



마음발견의 기술
김종명 지음
불광 펴냄/1만7천원

모두가 이미 답을 갖고 있다

코칭 행위는 인간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코칭은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온전하고, 필요한 해답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으며, 창의적이라고 본다. 코칭 행위가 기반하는 인간에 대한 믿음은 불교가 기반하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그 방향이 같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불성(佛性),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성품이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해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더러워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행을 통해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닦아 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불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코칭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돕는다.

불교 가르침으로 더 깊이 이해한 코칭

코칭은 패러다임, 실천, 프로세스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 차원들 각각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코칭의 패러다임은 코치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코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며, 누구나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성품인 ‘탁월성’을 갖추고 있음을 믿고 그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삼법인, 즉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와 연기법이라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코칭 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코칭 실천은 코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즉 기분 · 생각 · 욕구를 알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코칭의 여덟 가지 핵심 역량에 대응하는 불교의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칭의 프로세스는 코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실제로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불교의 사성제 또는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을 실천하는 것에 해당한다.

‘순간 함께 춤추는 코칭’은 무아서 시작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無我)’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무아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할 때 코치는 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코칭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적인 코칭이야말로 고민을 가진 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몰입하는 코칭, 즉 고민을 가진 이와 함께 ‘순간을 춤추는 코칭’이다. 코칭 행위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그들을 이롭게 한다. 동시에 코칭 행위는 팔정도에 따라 코치의 마음을 수양시킴으로써 코치를 이롭게 한다. 이런 점에서 코칭의 정신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 정신과 같다. 코칭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고, 그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2년 8월 부터
■ 개 강 : 2022년 9월 5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2년 9월 6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제10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2년 8월 22일(월) ~ 11월 7일(금)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 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6292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2(장전동) 문화공간 봄(BOMM) 2층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1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